

DJ “통일부 폐지 안하면 나라 망하나”

동교동 찾은 손대표에 “통일부는 통일 열망 상징”

“손대표는 50년 정통 야당 계승자” 힘 실어주기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24일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 “통일부를 없애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교동의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한 손학규 대표를 맞은 자리에서 “통일부는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는 상징”이라며 이같이 성토했다.

김 전 대통령은 손 대표가 “이 당선인이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은 그 내용과 절차에 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손 대표의 말씀에 동의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오는 2월 임시국

회에 대해서는 “국민이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되지만 정당한 반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손 대표께서도 이 세력의 대표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람이 아니냐”며 “50년 정통야당의 계승자라는 자부심을 가져달라”며 손 대표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김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선 참패 후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범여권에 대해 4월 총선에서 궤멸적 상황을 맞지 않으려면 손 대표 중심으로 결집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으로, 향후 손 대표의 위상



손학규 대표(왼쪽)가 24일 서울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 김대중 전 대통령과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을 크게 강화시켜주는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대통령은 범여권이 대선에서 총선에서도 참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의원 선거까지 대패하면 이제 야당의

존재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감동과 믿음을 주는 것이 선결조건이며, 그것을 준다면 우리 국민이 전통 있는 양당체제를 다시 복원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통합민주신당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당내 세신 차원에서 ‘호남 물갈이론’이 강력하게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의 통합론이 점차 탄력을 받으면서 총선 공천에서의 기득권이 약화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이를 반영하듯 일부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민주당과의 통합론에는 겉으로는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도 사석에서는 “공천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통합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냉소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민주당 후보와 지역구가 겹

신당 호남의원들 ‘시련의 계절’

신당·민주당 통합론에 “유탄 맞나” 전전긍긍

치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노골적으로 “총선 이후 통합이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호남지역 신당 국회의원 가운데 민주당과의 통합에 대한 부정적 기류는 신당 내의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이 더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앙위원회에서 손학규 대표 추대에 적극 나서며 당내의 정치적 입

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이미 갈라섰던 민주당의 합류가 걸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출신 모 의원은 “이번 통합제의 진정성이 없다는 점에서 총선을 앞두고 내부 단속과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박상천 대표의 다목적 전략”이라며 “진정으로 통합에 나서야 한다면 박상천 대표가 퇴진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또, 일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은 박상천 민주당 대표의 통합 제안 이후 손학규 대표에게 “통합 문제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민주당의 기득권 포기”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문을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구 열린우리당 출신 광주·전남지역 일부 의원들은 공천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 당 지도부를 집중 공략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심재민 前 광주 부시장 광산 예비후보 등록

4·9 총선 현장

“행정경험·전문성 지역발전에 쏟겠다”

○심재민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최근 광주 광산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표발걸음을 시작했다.

심 전 부시장은 “분구가 예정된 광산(송정)을 목표로 출사표를 던졌다”며 “광주시와 중앙정부에서 수십년간 쌓은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광주지역 발전에 모두 쏟아붓겠다”고 다짐했다.

김재두씨 “북구 갑 출마” 표발같이 분주

○김재두 민주당 수석 부대변인이 18대 총선 광주 북구 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국회정책연구원과 국민의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김 수석 부대변인은 “민주개혁세력의 분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나라당의 권력 독점에 맞서기 위한 한 개의 밑줄이 되겠다는 심정으로 출마에 나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영진씨도 총선 준비 본격화

○이영진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본부장이 최근 광주 광산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총선준비를 본격화했다.

지난 17대 대선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중앙선대위 정

동영후보 특보로 활동했던 이 전 본부장은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 새 정부에서 추진되는 각종 국책사업과 지역균형발전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피력했다.

최형식 前 담양군수 예비후보 등록

○최형식 전 담양군수가 최근 담양·장성·곡성에 예비후보로 등록, 표발걸음에 나서는 등 총선 체비에 만전했다.

전남도의회 3선 의원을 역임한 최 전 군수는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귀향하는 최효의 지역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지역민과 함께 농촌경제를 살리고, 지역발전을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김용역씨 “문화도시 시수 연대회의 갖자”

○18대 총선에서 광주 북을 지역 출마를 선언한 김용역 전 광주시의원은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폐지 추진과 관련,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이 꼭두 유기를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광주문화도시”시수를 위한 연대 회의를 개최하자”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인수위가 문화수도 조성위원회와 문공부 추진단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현역 국회의원들은 총선에 매몰돼 지역 현안 사업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현역 의원들을 겨냥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범여 전·현직 의원들 ‘제3지대’ 모색

대통합민주신당, 창조한국당, 옛 민주당 출신의 전·현직 의원들이 제3지대에서 별도의 모임을 구성하고 민주개혁진영 통합론을 모색하고 나서 주목된다.

신당 송영길 이종걸 의원, 창조한국당 정범구 최고위원, 장성민 김성호 박인상 전 의원 등은 23일 회동을 갖고 가칭 ‘새물결’을 구성했다고 장전 의원이 24일 전했다.

장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파를 떠나 민주개혁진영의 복원을 위해 제3지대에서 지평을 넓혀 나가자는데 공감을 이뤘다”며 “제3지대 창당론으로 갈지, 민주개혁진영 대통합론으로 갈지에 대해서 아직 입장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현대백화점 **클.주.점** (K-NOBILITY) (02)119-2111

소중한 분을 위한 품격있는 새해 선물 현대백화점 상품권입니다

현대백화점 상품권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처-전화만 주세요!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상품권 데스크 : 062)510-8333~4

시외지역 : 익일배송(유가증권 등기 배송)

5만원이상 전국 무료배송 서비스 - 광주시내지역 : 당일 배송

H-NOBILITY 패키지 한정판매

H-NOBILITY는 1천만원 상품권과 구매시 드리는 최고급 상품권 패키지

Premium 혜택 - 1천만원 상품권 구매시 30만원 상품권 증정

Excellence 포장물 - 신사임당 고서화 포장물 무료 제공

기간: 1/21(월)~2/1(수)

한글·발인카드*로 구매 가능합니다

1/25(금)~1/27(일) 8시 30분까지 연장영업, 1/28(월) 정상영업